

“한 끼 식사로 따뜻한 이웃사랑을”

추위 녹이는 선자! 20여년 무료급식하는 명법사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이 2010년 한 해 동안 30억 원에 가까운 기부금액을 모으면서 불교계의 자비 나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여년 동안 신도들과 함께 모든 사회복지기금으로 토요일마다 평택역 앞에서 무료급식을 펼치고 있는 사찰이 있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날씨가 영하 10도로 떨어지면서 전국이 꽁꽁 언 지난 15일 그 현장을 찾았다.

‘이동 밥차’ 토요일마다 평택역서 봉사 독거노인 노숙자 200여명에 점심공양

지난 15일 평택역 앞 명법사 자원봉사자 20여 명이 추운 날씨 속에서 밥을 퍼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평택역 앞에서 노숙자와 형편이 어려운 독거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이곳에 모였다.

이날 메뉴는 미역국과 불고기 야채 볶음, 콩나물 두침이었다. 오후 12시를 넘기자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총무 화정스님과 봉사자들의 손길도 바빠졌다. 수저를 놓고, 식판에 반찬을 담고, 식판을 나르고, 부족한 밥과 반찬을 더 날라다 주느라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노인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을 받아들이고 연신 손가락을 입으로 옮겼다. 상당수가 한 그릇 더 주

문할 정도로 미역국은 인기를 끌었다. 명법사는 이날 200여 명의 노인

과 노숙자에게 점심을 제공했다. 명법사가 무료급식을 시작한 것은 1988년부터다. 설과 추석, 불교의 4대 명절 때마다 역 앞에서 점심공양 봉사를 해오다 1998년 IMF 사태 이후 노숙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토요일마다 점심공양을 제공하고 있다.

총무 화정스님은 밥 끓는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자, 경계난 속에서 생명을 이어가는 최소한의 조건인 한 끼의 식사조차 제대로 해결 못하는 노숙자들을 돕는 것이 대승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최근 2년 전에는 200여 명분의 취사와 음식조리, 식기세척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명법사 밥



평택 명법사는 매주 토요일마다 평택역 앞에서 노숙자와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점심공양을 펼치고 있다. 지난 15일 총무 화정스님과 봉사자들이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차’를 구입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온정을 전하고 있다.

무료급식을 시작했을 때는 결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했지만 지금은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급식을 제공한다. 명절 때는 보은내의나 양말도 선물했다.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 평택뿐 아니라 곳곳의 독거노인과 노숙자들이 역을 찾는다. 지금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차례도 거르지 않아 무료급식 횟수는 헤아릴 수 없다.

봉사자들은 토요일이면 오전 약속

은 ‘자동으로’ 오후로 미룬다. 특별히 조를 이루고 봉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정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매년 20여 명을 채운다. 무료급식을 시작했을 때부터 봉사를 해온 유정례(70)씨는 “맛있게 드시고 흡족한 표정을 지을 때는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면서 “따뜻한 밤 한 공기, 국 한 그릇을 비우시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까지 따뜻해진다”고 말했다.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지만 매주 봉사하고 있는 김택영 군도 “‘밥 차’

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다”며 웃었다.

총무 화정스님은 “결인이나 노숙자는 대부분 인생의 벼랑 끝에 선 사람들로 대부분 뚜렷한 자립의지 없이 하루하루를 구걸로 연명하고 있다”며 “작은 정성이나마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평택=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구제역 순직’ 공무원 유가족 위로 총무원장 자승스님, 위로금과 단주 전달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아름다운동행 이사장)이 최근 구제역 방역 중 순직한 공무원 유가족을 초청

해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순직한 공무원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신재호 기자

실에서 최근 구제역 방역 중 순직한 공무원인 고(故) 금찬수(52, 안동시청) 씨와 고 김경선(37, 영양군 임안면사무소)씨의 유가족들을 초청해 위로하며 위로금과 단주를 전달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구제역이 이렇게 큰 아픔을 줄 지 미처 몰랐다”면서 “종단에서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최대한 지원할테니 슬픔을 이겨내고 희망을 갖고 곳곳에 살아가기 바란다”고 위로했다.

또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고 금찬수 씨의 아들인 금동철 군에게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의 장학금 지급을 약속한 뒤, 고 금찬수 씨의 49재를 올리고 있는 안동 보광사 주지 자명스님에게 “유가족들이 다시 힘을 내 줄 수 있도록 옆에서 고생을 같이하며 49재를 극진히 잘 지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社告

원폭 피해자 2세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불교신문사,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과 공동으로 원폭 피해자 2세를 위한 전문 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땅 1평 사기 운동’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일제 강점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 피해가 65년이 지난 지금도 되돌림 되고 있지만 원폭 피해자 2세의 경우, 한국과 일본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만원이면 피해자들의 안식처가 될 전문요양시설 건립을 위한 땅 3.3㎡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원폭 피해자 2세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될 전문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불자 여러분의 따뜻한 정성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주 최: 불교신문사, 합천평화의집, 아름다운동행
- 주 관: 합천평화의집
- 기 간: 2010년 9월22일부터 1년간
- 목 표 액: 2억원
- 후원방법: 5만원 - 원폭피해 2세를 위한 땅 3.3㎡(1평) 후원(십시일반 동참도 가능)
- 후원계좌: 농협 301-0063-8703-21(예금주: 아름다운동행)
- 문 의: 합천평화의집 (055)934-0301, 아름다운동행 (02)737-9595, 불교신문사 (02)730-4488

전국 교구본사별 ‘민족문화수호회’ 결성

3면

(주)한국인삼공사

가장 소중한 분께 드리는 소중한 선물

정관장 홍삼원

정관장 홍삼원은 엄선된 국내산 6년간 홍삼과 대추, 건강, 계피, 구기자 등 생약 성분을 더하여 지친 현대인에게 건강과 활력을 드리는 건강식품입니다.

- 판매대행 : (주)덕성C&B
- 입금계좌 : 농협 100106-51-098395 국민 526501-01-260241 예금주 : (주)덕성C&B
- 문의전화 : 02)2615-0183

(주)덕성이 책임집니다.

DM·정기간행물

(주)덕성은 DM, 정기간행물, 판촉물 등의 기획, 발송작업을 물론 서울 및 수도권지역, 부산 등 광역시에 직배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덕성C&B 운영시스템

신속하고 정확한 배송 시스템

고객 가치 극대화
경쟁력 강화
이익 극대화

이때를 여는 —— (주)덕성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4-9 덕성B/O 3층
TEL : (02)2615-0183(4) FAX : (02)2699-3139
http://www.duksgdm.co.kr

이때를 여는 —— (주)덕성C&B ——
직배사업부 : 서울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직배서비스 운영
TEL : (02)2615-3269(4)